

해남군 폐부표 자원순환 사업 전국 우수 모델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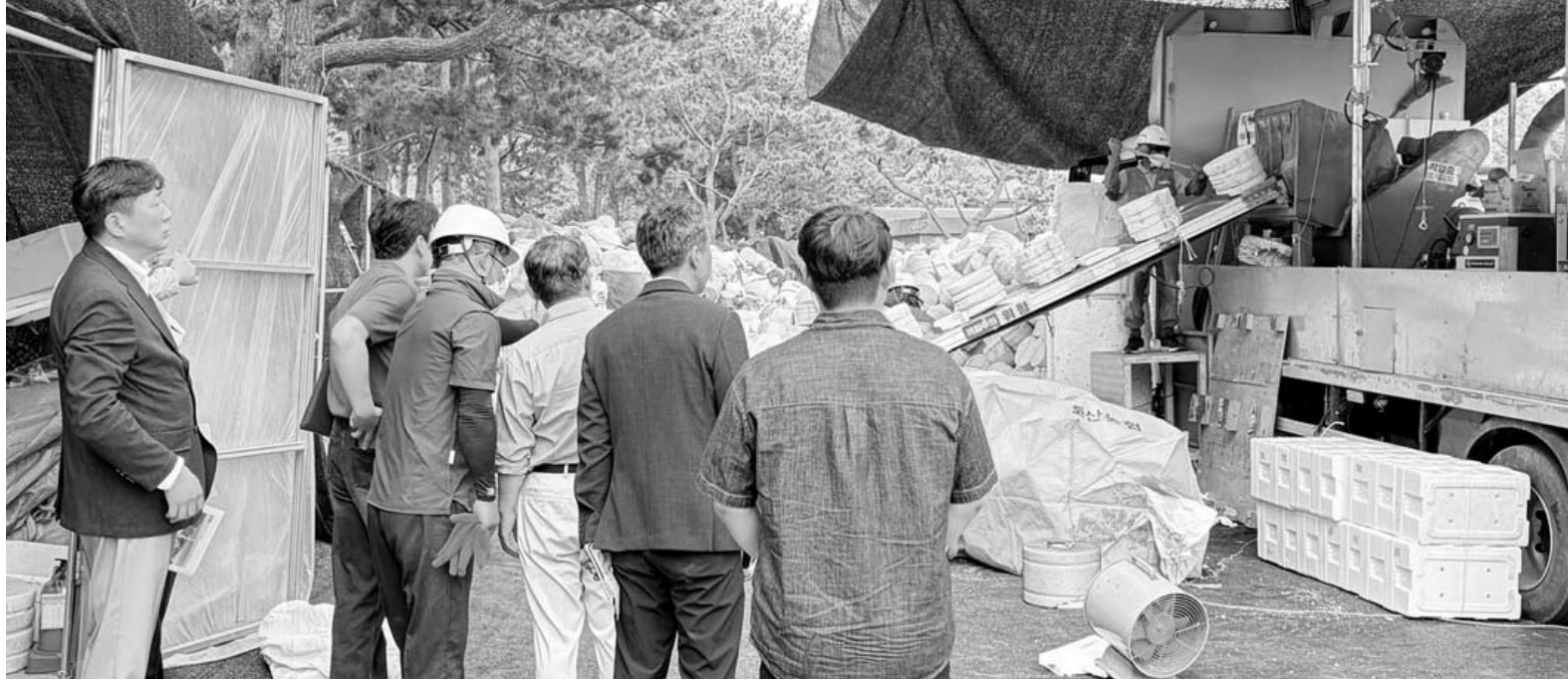
2015년부터 이동식 감용기 운영
160여만개 처리·33억 예산 절감
행안부 생산성대상 우수사례 선정
해수부 현장 점검 전국 확산 '기대'

해남군이 10년 넘게 추진해 온 '페스티로폼 부표 재활용 사업'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의 전국적인 우수 모델로 우뚝 서며 중앙정부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이동식 차량을 개조한 페스티로폼 감용기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양식장 등에서 버려지는 폐부표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페스티로폼은 해안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이에 군은 연안을 긴 관내 9개 면 어촌마을을 이동식 감용기가 직접 찾아가 순회하며 폐부표를 즉각 수거하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밀착형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무려 160여만개(220여)



해남군은 지난 2015년부터 이동식 차량을 개조한 페스티로폼 감용기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양식장 등에서 버려지는 폐부표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사진은 페스티로폼 부표 감용기 운영 해양수산부 현장 방문 모습. <해남군 제공>

의 폐부표를 성공적으로 처리했으며,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120을 수거했다.

감용기를 통해 압축·성형된 페스티로폼 덩어리는 사진 액자나 건축자재를 만드는 고급 원료

로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막대한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을 아끼고, 재생 원료 판매로 세의 수입까지 창출해 지난해까지 약 33억원의 획기적인 예산 절감 효

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과로 해남군은 2024년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과 환경부·SBS 공동 주최 '2025 기후환경대상'을 연달

아 휩쓸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전국 147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권위 있는 평가인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도 행정 효율성을 인정받아 환경 분야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 행정의 혁신 사례로 입소문을 타면서 중앙 부처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들은 해남군 화산면 송평항을 직접 방문해 이동식 감용시설 운영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들은 단순 수거를 넘어 재활용까지 완벽히 연계한 해남형 자원순환 모델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찬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인 확산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남군 관계자는 "수산의 근간을 위협하는 페스티로폼 부표는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체계를 한층 강화해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진도군, 6일 야간형 '굿데이 굿음악축제' 팡파르

철마광장 일원 국립남도국악원 연계
'빛의 판' 연출·전통 민속예술 등 공연

진도군의 여름밤이 화려한 빛과 신명나는 전통의 가락으로 물든다.

3일 진도군에 따르면 오는 6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철마광장 일대에서 진도군문화도시센터, 국립남도국악원과 손잡고 야간형 문화예술 축제인 '굿데이 굿음악축제'를 개최한다.

'굿데이(Good Day) 오늘, 가장 좋은 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진도의 전통 민속예술에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특별한 야간 축제다.

특히 4일부터 시작되는 국립남도국악원의 대표 야의 행사 '굿음악축제'와 연계해 한층 풍성

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해가 지면 철마광장 일대는 화려한 조명과 빛 연출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빛의 판'으로 탈바꿈한다.

축제장에서는 ▲전통연희와 국악 기반 공연 ▲관객 참여형 거리공연 ▲현대적 감각을 더한 창작 공연 등이 펼쳐지며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지역 상인과 청년 판매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터가 열린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진도의 고유한 전통과 사람, 그리고 거리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자리"라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진도의 밤을 가장 특별하고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강진 아트팜 '태양광+AI' 스마트농업 선도

기후부 주관 기술개발 실증사업 선정
순천·목포대 협력 탄소중립 모델 구축

강진군이 영농형 태양광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탄소중립 기반의 친환경 실증에 나서며 미래 스마트농업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관내 영농조합법인 '아트팜'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5년도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연구과제인 '영농형 태양광 기반 탄소배출 제로 AI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생산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유기적으로 묶어내는 미래형 농업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과 AI 기반 스마트 온실 기술을 접목해 화석 에너지 사용을 대폭 줄이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에는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237억 원이 투입된다.

순천대와 목포대 등 참여 기관들이 AI 및 데이터 기반 최적 운영 알고리즘과 탄소중립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면 강진 아트팜(사진) 일



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영농형 태양광 연계 스마트 온실 운영과 AI 환경제어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현장 실증이 이뤄진다.

특히 햇빛 투과율 조절이 가능한 '투과형 태양광 모듈' 등 첨단 에너지 활용 기술을 온실에 적용해 스마트팜의 전력 소비를 대폭 절감하고, 시설원에 분야 에너지 자립률을 5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AI 기반 환경 분석을 통해 작물 생육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생산 안정성과 농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통적인 농업에 재생에너지와 첨단 AI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미래 농업 모델을 지역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강진군이 전국구 미래형 스마트농업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무안군, 청년도전지원사업 선후배 멘토링

오늘·9일 52명 대상 멘토 특강 운영

무안군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선후배가 직접 소통하며 노하우를 나누는 뜻깊은 멘토링 자리를 마련했다.

3일 무안군에 따르면 4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2025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52명을 대상으로 선배 취업자 초청 특별멘토링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특강에는 지난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현재 한국전력공사 인턴으로 근무 중인 청년이 직접 강단에 선다.

특강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계기와 활동 경험부터 수료 후의 취업 준비 과정, 한국전력공사 인턴십 선발 과정 및 향후 진로 계획 등 현장의 생생한 취업 성공기가 가깝 없이 공유될 예정이다. /무안=김상호 기자



영암군청소년센터, '진로 탐색' 프로그램 성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장 경험

영암군은 "최근 영암군청소년센터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별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과거를 잇다, 미래를 가꾸다"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폭넓은 외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장을 찾아 전국 각지의 기관과 단체가 마련한 다채로운 부스를 순회했다. <사진> 진로, 문화, 환경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여

리 분야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한편, 전국의 또래 청소년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견문을 넓혔으며, 여수 유원지를 방문해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 부스를 경험하며 여러 분야의 직업을 알아볼 수 있어 유익했다"며 "친구들과 함께 뛰놀며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영암군청소년센터 관계자는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목포상의 "서남권 기업 중동 사태 이종고...지원 절실"

4차례 실태 조사...업체 매출 20% ↓
유류세 인하·물류비 지원 등 건의

목포상공회의소는 3일 "지난 3월부터 전남 서남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대외 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 등 대외 환경 악화로 이종고를

겪는 전남 서남권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1-2차 조사 결과 다수의 기업이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급증으로 2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3-4차 심층 조사에서는 운수업체의 유류비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 제조업체의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 악화, 조선업계의 원자재 수급 차질 우려 등 업종별 피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목포상의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

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 유류세 인하와 물류비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애로테스크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군, 다이아몬드 해역에 쥐노래미 18만마리 방류

신안군은 "최근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다이아몬드 해역 일원에 쥐노래미 18만마리를 방류했다"고 3일 밝혔다.

방류된 쥐노래미는 전장 5cm 이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엄격한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우량 종자이며, 행사는 해당 지선 어촌계 어업인들과 함께 선상 방류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

이번 방류 해역은 신안군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5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쥐

노래미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다.

군은 그동안 이곳에 인공어초 503개를 투하하고 종자 5만마리를 방류했으며, 곰피와 다시마 등 해조류를 집중적으로 이식해 바다숲을 일궈냈다.

사업 마지막 해인 오는 7월에는 21만마리를 추가 방류하고, 폐기물 수거 등 대대적인 환경 개선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어초 투하와 해조류 이식 등을 통해 수산 생물들이 안심하고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풍부해진 수산 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다이아몬드 해역을 전국 최고의 바다낚시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 기자